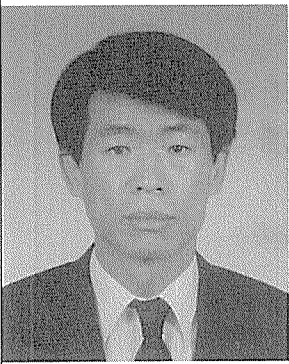


오리협회 신임전무 대담



신 훈 진 | 전무

“**축** 산법에 오리에 관한 부문이 빠져있을 정도로 오리산업은 제도권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오리산업과 관련된 일을 시작한 만큼 산업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는 일에 매진하겠습니다.”

지난 8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한 신훈진 한국오리협회 신임전무의 각오다. 그는 부임하자마자 오리의 종축개념을 포함하는 산업 관련 규정이 축산법에서조차 명문화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 시정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농림부 방문일정을 잡는 등 동분서주하고 있다.

“오리가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제도와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그는 협회의 기능도 이같은 산업 시스템 구축과 이의 보조역할에서 찾고 있다.

그는 이를 위해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오리가 명문화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산업의 지표가 되는 정확한 통계자료 수집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협회에서 일하는 동안 그가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은 것은 정확한 수급예측을 위한 자료수집이라고 한다.

그는 “회원사와 회원농가에게서 자료를 전달받는 일이 쉽지 않다.”며 “수급조절은 정부보다 생산자단체의 역할이 더 커지는 것이 대세이며 효율적인 수급조절은 회원농가와 회원사의 수익창출과도 직결되는 만큼 지면을 통해서라도 협조를 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협회에서도 회원농가와 회원사와의 돈독한 관계를 위해 주말을 할애해서라도 출장을 자주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1946년생으로 구 축협중앙회 감사실, 기획실, 농협중앙회 지점장 근무 경험이 있으며 농림부에서도 근무한 바 있다.